



애경케미칼, 담합금지 실천서약식... 공정거래 앞장
 애경케미칼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에서 '담합금지 실천서약식'을 열고 임직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담합 근절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약서에는 담합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경쟁사와의 담합을 배제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경케미칼



JW중외제약, '세계 빈혈 인식의 날' 캠페인 전개
 JW중외제약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JW사옥에서 '세계 빈혈 인식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2월 13일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로 JW중외제약은 임직원들에게 빈혈에 동반되는 위험성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JW중외제약



우아한형제들-기아대책, 나눔문화 확산 업무협약
 우아한형제들이 국제구호개발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지난 10일 서울시 강서구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사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왼쪽)과 기아대책 박재범 미션파트너십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딜로이트그룹, 배두용 리더 영입
 (前 LG전자 CFO·대표이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국내 기업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통상 정책 대응을 위해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조직을 신설하고, 리더로 배두용(사진) 전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배두용 리더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국세청 조사국과 국제조세국에서 서기관으로 재직 후 2005년 상무로 LG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대외협력, 세무, 통상, 인수·합병(M&A), 해외법인 설립, 이전 등 해외법인 관리 분야 총괄 경험을 축적했으며 재무·통상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임용 ▲편집국 자본시장부장 부국장 김민호 ◇승진 ▲전무이사 이정희 ▲편집국 유통&라이프부 부장대우 이세경 ▲편집국 정책사회부 차장대우 이현진 ▲편집국 편집부 차장대우 신혜영 ▲편집국 디지털콘텐츠부 과장 김천일 ▲경영지원실 과장 최은경 ▲경영지원실 과장 정예지
-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부사장 정인노 ◇상임이사 ▲기획전략이사 조영호
- ◆현대ADM바이오 ▲조두연 Medical 사업본부장

“美 증시 투자핵심은 변동성 대응 ... 관세정책 변수”

인터뷰 |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美 증시 방향, 트럼프1기 유사 전망 리서치센터 통해 차별화 정보 제공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지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은 서학개미(미국 증시 투자자)에 호재지만, 관세 정책은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 증시 방향에 대해 “트럼프 1기 취임 초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정책은 초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 센터장은 “트럼프의 정책 패턴을 보면, 초기에 강한 충격을 주고 이후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됐다”며 “결국 시장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 증시의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변동성은 경계했다. 최근 미국증시는 주가수익비율(PER)이 20배까지 높아진 상태다.

이 센터장은 투자 전략에 대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채권 투자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는 현재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클 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간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급등해도 한국 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AI 반도체 섹터에서 미국 기업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

/토스증권

모습을 보여, 한국 투자자들도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 다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강달러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환차익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국내 증시 부진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가 늘고 있다. 한국에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100조 원(68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 규모는 1월 말 기준 167조 원(1138억 달러)으로 불어났다.

한편 토스증권은 최근 서학개미들에게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리서치센터가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미국 증시 분석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주목받는 하우스로 자리 잡았다.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3명과 콘텐츠 매니저 2명이 협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콘텐츠 매니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분석 자료를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집 및 발행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런던대에 장학제도 설립... 글로벌 혁신인재 키운다

런던대 SOAS 장학금 기부 계약 아프리카 학생 대상 인터십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에 아프리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과 SOAS는 10일(현지시간) 런던대 SOAS 세넬트 챔버에서 ‘현대차그룹 장학금 기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OAS는 런던대의 17개 단과대학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연구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SOAS와 ▲개발 리더십 대화의 장 연구소(DL



기아 영국법인 사이먼 헤더링턴 상무(왼쪽부터), 현대차&제네시스 영국법인장 애슐리 앤드류 상무, 현대차그룹 GSO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런던대학교 아담 하비브 총장, 엘리사 반 웨이엔버그 학장,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가 10일(현지시간) 런던대 SOAS 세넬트 챔버에서 ‘현대차그룹 장학금 기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D) ▲지속 가능한 구조변화 연구소(CSST)를 설립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부터 5년 동안 SOAS 내 아프리카 출신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학업 종료 이후 현대차그룹이 주최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및 세미나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현대차그룹의 아프리카 협력모델 수립과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SOAS내 아프리카 출신 학사·석사급 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인터십’ 과정을 운영한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GSO 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장학제도를 설립하고, 아프리카의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

아모레퍼시픽, 신진 인문학 연구자 지원

‘장원 인문학자’ 5기 모집

아모레퍼시픽재단이 이달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아모레퍼시픽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장원(粧源) 인문학자 지원사업’ 5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은 인문학분야에서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진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왔다.

올해로 5기째 운영되는 ‘장원 인문학자 지원사업’ 공모는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인문학(어학, 문학, 사학, 철학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논문이나 저서 형태의 연구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의무 요건은 없으며, 연구자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기간 내 연구를 이행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연구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재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최대 4년간 월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청하 기자 mlce236@

LG전자, 구성원 자녀에 입학 선물 전달

조주완 사장, 학교생활 응원 메시지를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래프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전자가 내달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들에게 노트북, 학용품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 구성원들은 자녀 1명당 1회 자녀의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초등학교), 2012년생(중학교), 2009년생(고등학교) 자녀 3000여명이 선물을 받는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

을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래프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전자는 노트북, 스탠바이미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 1500여명에게 학용품 세트, 운동복 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추가로 전달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사장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입학 축하 편지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